

아이비클럽

IVYCLUB NEW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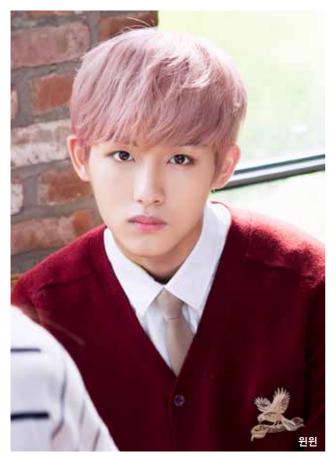
DOYOUNG MARK TAEYONG WINWIN YUTA JAEHYUN TAEIL TEN HAECHAN MINJAE SOOMIN 아이비클럽의

새 로 운 모 델



에 게 묻 는 다 **대답해줘**







WINWIN 원원

- 교복모델이 된 기분이 어떤가요? 엑소 선배님들을 좋아하는데, 엑소 선배님들이 했었던 아이비클럽 모델을 저도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 수업시간에 졸릴 때 깨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써봤다! 졸음이 깰 때까지 앉았다 일어났다 버팁니다.
- 나만의 교복스타일링 팁?! 가장 편한 스타일로 입는 게 좋아요.
- 교복 위에 추위를 이기는 나만의 팁 ?! 목도리를 자주 이용해요.

TAEIL 태일

- 나만의 교복스타일링 팁?!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맞게 입는 것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 교복 위에 추위를 이기는 나만의 탑?! 겨울 날씨는 교복만으로는 너무 춥기 때문에 교복 위에 두꺼운 자켓을 입어요. 장갑을 낀다면 더욱 따뜻하겠죠.
- 좋아하는 패션아이템은? 신발. 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보이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신경쓰는 아이템입니다.
- 팬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저희가 언제 어디에 있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꿈을 위해 파이팅 하세요!

JAE HYUN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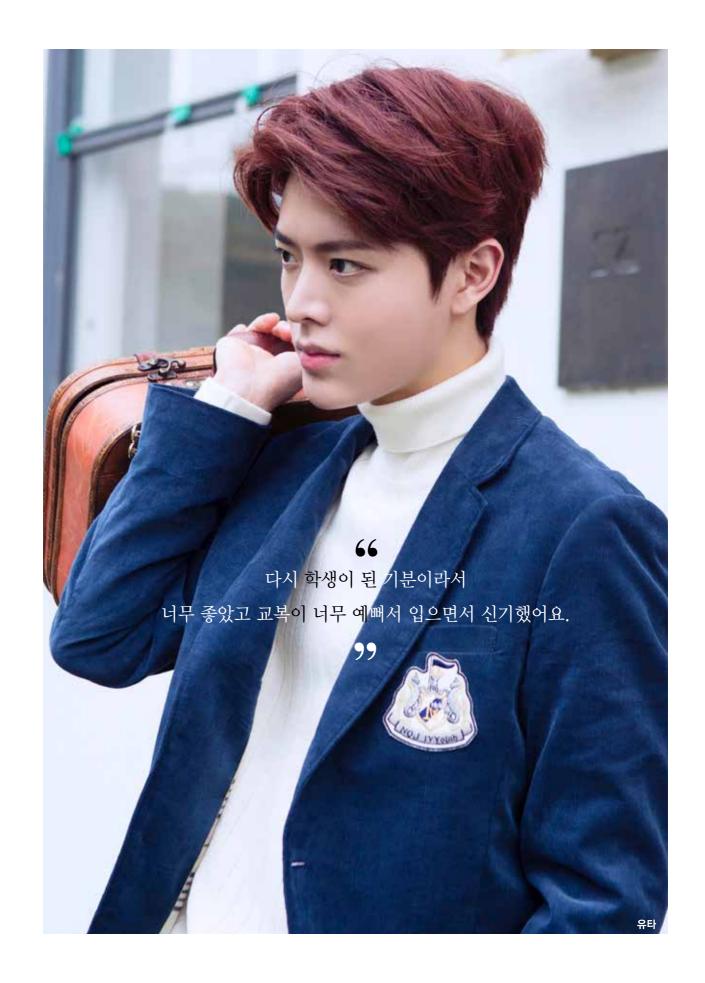
-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 저스틴 팀버레이크. N Sync 활동 때부터 지금까지의 아티스트로서 발전한 모습들이 멋있다. 작사, 작곡, 춤, 노래, 연기 모두 잘하고 섹시하다.
- 좋아하는 패션아이템은? 팔찌, 반지. 심플한 패션에 포인트 주는 것을 좋아해요.
- 나만의 교복스타일링 팁?! 단정하지만 몸의 핏에 맞게!
- 교복 위에 추위를 이기는 나만의 탑?! 추억의 손 난로. 학교다닐때 교복 주머니 안에 손 난로를 넣고 따뜻하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HAECHAN 해찬

- 교복모델이 된 기분이 어떤가요? 제가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 교복을 입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걱정 20%, 교복모델이 돼서 행복함 80%입니다.
-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마이클 잭슨. 제가 싱어송라이터라는 꿈을 갖게 해준 아티스트입니다.
- 나만의 교복스타일링 팁?! 동복은 따뜻하게, 하복은 시원하게, 체육복은 편안하게
- 별명은? 없다면 불리고 싶은 별명이 있나? 동아해찬. 본명인 동혁이로 부르다가 활동 명이 해찬이로 바뀌어서 생긴 별명입니다.









TEN 텐

- 교복모델이 된 기분이 어떤가요?
 아이비클럽의 교복모델이 되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많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저의 롤 모델은 샤이니의 태민선배님입니다.
- 팬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팬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좋아하는 패션아이템은?
 패션아이템에 관심이 많아 모든 악세사리 종류 다 좋아합니다.
-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한국음식 중에 순댓국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놀랐어요.
 순댓국 너무 좋아요.

DO YOUNG 도영

∼ 교복모델이 된 기분이 어떤가요?

학창시절에 교복을 살 때마다 교복모델을 보고 어느 교복을 살지 정하는 편이였는데 저도 사고싶게 만드는 교복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디오형과 규현이형. 모든 면에서 센스있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닮고 싶어요. 나중에는 꼭 규현이형처럼 솔로 콘서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좋아하는 패션아이템은?

안경. 시력이 좋지않아서 안경을 쓰고있어요. 요즘 새안경을 사서 자주 쓰고 다니는데 패션아이템으로도 좋은거 같습니다. ^_^

∖ 나만의 교복스타일링 팁?!

요즘 교복을 자기 스타일에 맞게 즐겨 입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교복스타일링 팁은 많이 줄여입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몸에 맞게 가장 학생다운 깔끔한 모습으로 입는 것이 제일 예쁘게 입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많았는데, 보통 두꺼운 카디건이나 패딩을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교복 위에 추위를 이기는 나만의 팁 ?! 학교 다닐때 추울 때면 교복 위에 무언가를 입고 다니는 경우가

MARK №

교복모델이 된 기분이 어떤가요?

저처럼 실제 학생이 직접 모델이 되어서 진짜 신기하고, 영광입니다. 또한, 한 명의 학생으로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가끔 바뀌긴 하지만, 현재의 롤 모델은 저스틴 비버입니다.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음악의 길을 시작하기도 했고, 음악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 좋아하는 패션아이템은? 모자를 자주 씁니다. 겨울에는 목도리도 이용합니다.
- 교복 위에 추위를 이기는 나만의 팁 ?! 교복 위에 야구점퍼나 교복바지 색에 어울리는 어두운 색의 코트를 걸쳐입어요.
- 별명은? 없다면 불리고 싶은 별명이 있나? 물크! 제 영어이름 Mark에서 나온 별명입니다.

YUTA 유타

- 교복모델이 된 기분이 어떤가요?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라서 너무 좋았고 교복이 너무 예뻐서 입으면서 신기했어요.
- 좋아하는 패션아이템은? 모자.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 나만의 교복스타일링 팁?!일본에 있을 때 셔츠의 단추를 조금 풀고, 바지를 좀 내려서 입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 교복 위에 추위를 이기는 나만의 팁?! 카디건을 위에 입었어요.

TAE YONG 태용

- 교복모델이 된 기분이 어떤가요? 학창시절부터 교복을 맞추러 갈 때 교복모델 분들이 너무 멋있고 예쁘다고 느꼈는데, 제가 교복모델이 되어서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동방신기 선배님들. 너무 멋있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존경합니다.
- 좋아하는 패션아이템은?모자. 춤을 좋아하다 보니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지 않게 항상 모자를 쓰는 편입니다.
- 교복 위에 추위를 이기는 나만의 팁?! 밖에 나가지 않는다?
- 별명은? 없다면 불리고 싶은 별명이 있나?
 TY (Thank You).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붙여진 별명입니다.











!아이비클럽이 수험생들에게

불나을 기원합니다~

(아니 不, 떨어질 落)



유승선 한의사가 추천하는

수청생 건강판리법을 소개합니다.

속이 편해야 머리도 편합니다!

수험생에게 우선이 되는 두뇌 회전과 집중력 향상에는 그 바탕에 튼튼한 소화력이 뒷받침 되어야해요. 건강한 위장에서 좋은 혈액과 영양분이 만들어져 두뇌로 전달되어야 머리가 활성화되죠.

시험날이 다가오면, 이런 <mark>음식은 피하세</mark>요!

소화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인스턴트나 패스트 푸드, 밀가루,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찬 음식은 위장기능을 저해시키고 두뇌 회전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평소 위장이 튼튼했던 사람이라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평소보다 예민해 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할 음식은 최대한 주의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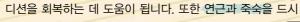


속이 편해지는 음식을 드세요

수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 불필요한 열이 쌓이기 쉬우며 이렇게 생긴 열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력이기 때문에 부드러워 소화가 쉬운 죽은 예민해진 위장의 소화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낚계나 전복. (12) 등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낙지와 전복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며. 쇠고기는 각종 단백질이 풍부하여 위장을 보호하고 기혈을 북돋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가을겨울로 넘어가는 때라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칫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운 때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정상 컨디션에 비해 실력 발휘가 어려우니 이를 미리 예방하면 좋겠죠. 이 때 우엉은 인후부의 엄청을 내려주고, 몸에 쌓인 나쁜 얼을 식혀 감기를 예방하고 컨



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과한 열을 내려줘 수는레스를 완화하고 <u>숙면을</u>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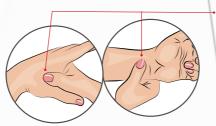


아이비클럽에서 알려주는 수청생 지압점

장시간 공부로 생긴 눈의 피로와 충혈엔 눈썹 근처의 찬죽혈과 사죽공혈을 눌러주세요. 피로하거나 부어 있는 눈을 맑게 해주고 두통과 어지럼 증에도 좋습니다!

시험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엔 목 뒷 쪽 풍지혈을 눌러 주세요. 목 근육을 풀어줘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꾁] 긴장으로 소화가 잘 안될 때는 손바닥에 있는 내관혈과 합곡혈을 눌 러주세요. 음식에 체했거나 구토, 설 사가 있을 때 두근거림이나 불안감, 답답한 가슴을 진정시켜줍니다.

^{5©}시험날,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수험생 추천세트를 모바일로 선물하세요!









죽 도시락 예약하기

시험날 죽도시락 사전예약이 가능한 가맹점을 검색한다.



시험날 죽도시락을예약한다. (메뉴/이름/연락처/포장방법/ 찾아 갈 날짜와 시간 체크 필수!)



예약 날짜와 시간대에 가맹점을 찾아간다.



주문 예약 시, 직접 보온도시락을 매장에 가져오시면 시험 당일 정성을 담은 죽을 수험생에게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수능 전날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본죽 홈페이지/모바일 페이지 이벤트 게시판 참조)



김민재

≺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없는거 같아요 롤모델을 정하게되면 그사람과 똑같이 되가는 것 같아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의 장점이 있어서 많이 배우려고는 합니다! 다만 저는 제1의 김민재가 되고싶어요^^

╲ 팬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음...한마디가 아니네요ㅎㅎ 밥 잘챙겨드시구요. 날씨추우니까 옷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그리고 고3인 친구들도 있는데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하는거 같아요ㅠㅠ 하지만 다 잘 될거니까 화이팅하세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만의 교복스타일링 팁?!

아무래도 양말과 신발 그리고 가방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깔끔하게 입는게 가장 이뻐여~

∼ 교복위에 추위를 이기는 나만의 팁?!

목도리죠! 그리고 자켓위에 롱패딩!! 그리고ㅋㅋㅋㅋ수면양말은 필수입니다.

별명은? 없다면 불리고싶은 별명이 있나?

real.be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랩할때 쓰는 이름입니다. 불리고싶은 별명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아이비<mark>클럽</mark>×삼<mark>양식품</mark> 학교 끝나고, 우리집에서 라면먹고 갈래?







#반반 #반은부셔넣고 #반은생라면





#어때? #맛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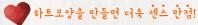
재료 (1인분 기준)

불닭볶음탕면 봉지면 1개, 참치캔 1/2캔, 밥 한 공기, 피자치즈 1컵, 옥수수콘 1/2컵, 조미김가루 1/2컵





- 물 300ml에 액상스프를 넣고 끓여 주세요.
- 2 물이 끓으면 불닭볶음탕면 면 1/2만 잘게 부순 후. 4분간 더 끓인 다음 후첨분말스프를 넣어 주세요.
- 양한 불에 식용유를 두르고, 밥 한공기와 참치캔 1/2, 불닭볶음탕면을 넣고 같이 볶아 주세요.
- 전자레인지 그릇에 담아 피자치즈와 옥수수콘을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 주세요.



전자레인지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치즈가 덜 녹았으면 전자레인지에 더 돌려 주세요~

⑤ 조미 김가루를 올리고 맛있게 먹어요~ 🔭















- **1** 큰컵불닭볶음탕면의 <u>슈프</u>를 꺼낸 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간 기다려 주세요.
- ② 면이 익을 동안, 소시지를 30초간 전자레인지에 데워 주세요.
- 3분후, 면에 후첨액상스프와 분말 스프를 넣고 잘 저어 주세요
- ✓ □✓ 불닭볶음탕면에 소시지를 잘라 올리고,

슬라이스 치즈 1개, 스트링 치즈 1개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돌리면 완성!



든든하게 먹고 싶으면 **반숙계란**을 추가해서 먹어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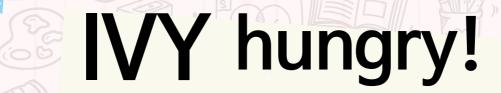
Recipe

재료 (1인분 기준)

큰컵불닭볶음탕면 1개, 체다 슬라이스 치즈 1개, 스트링 치즈 1개, 소시지 1개 ↔ 반숙계란 1개

불닭볶음탕면매점 정식





배고프고 꿈고픈 10대들을 위한 아이비클럽 응원 프로젝트!

아이비헝그리란?

HUNGRY의 갈망하다라는 뜻을 인용하여 항상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고 바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 꿈을 이뤄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아이비클럽의 스쿨어택 이벤트 입니다.





아이비클럽 이벤트 당첨자

BEFORE & AFTER

꿈 응원 릴레이, 아이비 헝그리 프로젝트의 첫번 째 당첨자로 평택비전고 등학교 임정연 학생이 선 정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아릅답 게 변한 임정연 학생에게 는 아이비클럽 교복을 입 고 뷰티화보를 촬영하는 ▲ 꿈같은 특별한 기회가 주 어졌습니다.



평택비전고등학교 1학년 **임정연**

















전문가가 조언하는 학생스타일링 TIP!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예쁜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피부톤에 어울리는 베이스와 자연스러운 핑크톤의 틴트가 가장 잘어울려요!







꿈 응원 릴레이! 아이비헝그리 프로젝트

친구들을 응원하는 사연 남기고 인생샷도 남기자



▶ 응모방법

- 1. 오른쪽 하단 QR코드를 이용하여 공식홈페이지로 방문해!
- 2. 반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고 친구들을 응원하고 싶은 이유를 써줘!
- 3. 많은 친구들에게 소문까지 내주면 센스쟁이~

Tip. 친구들의 추천을 많이 받을수록 당첨확률 UP ~!

- ▶ 이벤트기간 2016.11.21 ~ 2017.02.28
- ▶ 당첨자발표 2017.03

아이비헝그리 프로젝트에 당첨된 친구에게는 학급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든든한 간식과 아이비클럽 매거진 24호에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드립니다.

*부정확한 개인정보 입력 시, 당첨에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제공 비즈엔터 글 이은호 기자 사진제공 YG 엔터테인먼트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문샷 플래그십 스토어.

트렌드를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온갖 국적의 외국인들이 오가는 곳인 만큼, 매장에는 최근 가장 '핫'하다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마이 러브 이즈 온 파이어(My love is on fire)" 문샷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난 1일 새 싱글 '스퀘어 투(SQUARE TWO)'를 발표한 걸그룹 블랙핑크의 신곡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노래의 주인공 블랙핑크 멤버들을 직접 만났다.

블랙핑크 "데뷔와 다름없는 컴백이에요. 새로운 곡을 들려 드리는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떨리고 기대돼요. 큰 기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본 블랙핑크는 수줍음 많은 소녀들이었다. 태연한 얼굴, 능숙한 퍼포먼스로 무대 위를 누비던 멤버들은 "인터뷰가 가장 힘들

다"며 수줍게 웃어 보였다. 선배들의 응원을 묻는 질문에 "산다라 박 선배님이 치킨을 사줬다"고 말했다.

지수 "데뷔 활동 당시 미디어 노출이 없었던 편이라 새 음반을 발표하기 전 걱정이 많았어요.

10위 안에만 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와서 신기합니다.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찾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해요."

인터뷰 내내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블랙핑크지만 이들의 데 뷔는 센세이셔널했다. 'YG엔터테인먼트가 투애니원(2NE1) 이후 7년 만에 내놓은 걸그룹'이라는 설명은 블랙핑크를 향한 기대를 최고로 끌어올렸고, 지난 8월 발표한 데뷔 싱글 '스퀘어 원(SQUARE ONE)'은 국내외 음원차트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괴물 신인'의 탄생을 알렸다.

지수 " 사실 아직도 데뷔가 실감 나지 않아요.

활동이 끝난 뒤에는 계속 연습실에만 있었으니, 연습실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사람들의 평가가 부담스럽지는 않느냐고요? 연습생 시절에 비하면 차라리 마음이 더 편해요. 회사 안에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받으니 많이 긴장됐 는데, 이젠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더욱 힘이 납니다."

쉽게 데뷔한 걸그룹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블랙핑크의 데뷔 과정은 더욱 지리했다. 지난 2012년 멤버 제니가 지드래곤 '그 XX'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처음 얼굴을 알린 이후 무려 4년간의 담금질을 더 거쳤다.

제니 기사로 사진까지 공개됐으니 '이제 정말 데뷔하나보다' 했는데 그 후로 꽤 긴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데뷔 여부를 두고 마음고생도 했고요. 팀 구성이 갖춰지면서부터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저도 마찬가지에요.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이 힘들었는데, 곁에 멤버들이 있어서 기댈 수 있었어요. '그래. 얘도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웃음)"

오랜 기다림을 거쳤지만 데뷔 음반 발매 당시 활동은 많지 않았다. SBS '인기가요'에 다섯 차례 출연한 것이 방송 활동의 전부.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지난 1일 MBC에브리원 '주간 아이돌' 녹화를 통해 예능 데뷔 신고식을 치렀다. 리사는 "정말 떨렸다. 예능 프로그램에는 처음 출연하는데다가 그동안 우리가 말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기회가 없지 않았나.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털어놨다.

지수 "어찌나 떨리던지, 제니는 말하는데 입술이 떨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어요. MC를 맡은 정형돈 선배님과 데프콘 선배님이 계속 격려해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없는 걸 쥐어짜내면서 개인기도 하고 왔어요."

로제 "해볼만 하냐고요? 음··· 열심히 할 자신은 있어요! (웃음)"

신곡 '불장난'과 '스테이(STAY)'는 '도전'과 '변화'로 설명되는 노래다. '불장난'에서는 처음으로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를 시도했으며 '스테이'는 블랙핑크의 감성적인 면모를 부각시킨 발라드 곡이다. 로제는 "더욱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오랜 시간 연습했다. 양현석 사장님도 여러 차례 모니터해줬다"고 전했다.

지수 '불장난'은 안무에도 신경을 많이 쓴 노래에요. 해외 안무가 분들의 도움도 받았고 큰 안무도 많아서 처음으로 헤드셋 마이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로제 "화면을 통해서 우리의 퍼포먼스를 본 건 지난번 음반이 처음이었거든요. 제스처도 부족하고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무대에 임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스테이'는 발라드 곡이라 보컬 연습도열심히 했어요. 저는 기타 연주도 직접 했답니다."

빅뱅을 필두로 위너, 아이콘 등 쟁쟁한 선배 가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만큼 배울 점도 많단다. 제니는 "무대에서 나오는 에너지나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 등 선배님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선배들의 이름이 주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지수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YG만의 색깔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로제 "회사 선배님들이 크게 활약하고 계시니 후배로서 당연히 부담감은 있어요. 뒤처지지 않게, 그 길을 꾸준히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력은 잔뜩 무르익었지만 태도는 풋풋하다. "오래 기다린 만큼 신 인상을 받게 된다면 무척 기쁠 것 같다"고 말하며 웃는 제니의 얼 굴 뒤로, 그의 말간 민낯이 보인다는 착각이 들었다.

제니 "아직 많이 서툴지만 오랫동안 준비한 노래인 만큼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해주시길 바랍니다. 활동 중인 많은 걸 그룹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했어요."

지수 "블랙핑크라는 팀 이름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팀이 되고 싶어요. 활동이 많지 않다 보니 쉽게 잊힐 수도 있지만, 언제 어떤 음악을 들고 나와도 관심 갖고 들어볼 수 있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NUEST

DREAM

KEEPS

GOING

뉴이스트, 소년과 어른 사이

제공 비즈엔터 글 이은호 기자 사진 윤예진 기자

"혹시 인터뷰 시간은 얼마나 오래 예상하 고 계세요?" 그룹 뉴이스트와 인터뷰 일 정이 확정된 날, 소속사 홍보 담당 직원이 조심스레 물어 왔다. 다음 일정이 있으니 빨리 끝내 달라는 요청이겠거니, 작게 한 숨을 쉬고 대답했다. "한 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일정이 있나요?" 그러 자 예상을 한참 벗어난 답변이 되돌아왔 다. "그게 아니라, 멤버들이 워낙 말이 많 아서요." 어라? 이 팀. 신선하다.

데뷔 5년 차. 그런데도 평균 나이는 아직 22.4세다. 어른과 소년의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는 뉴이스트에게서는 그러나 그 흔한 사회물도, 철없음도 느껴지지 않았 다. 다만 진중한 표정에서 책임감을, 솔직 한 고백에서 싱그러움을 맡을 수 있었을 뿐이다. 소년과 어른, 그 매력적인 경계에 선 뉴이스트를 만나봤다.





야외 촬영은 평소에도 많이 하는 편인가요 ②



• **민현:** 아뇨, 굉장히 오랜만에 나간 거예요. 자연광을 받았으니 멋진 사진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하하하.

밖에 다닐 때 불편한 점은 없어요 아까도 지나가던 사람이 아는 척을 했잖아요.

• 민현: 네, 없어요. 으하하. 요즘에는 다들 개성 강한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 크게 눈에 띄지도 않는 것 같아요. 편하게

다행이네요.

혹시 가수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은 없었나요 🗭



• 민현: 학창시절의 추억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아쉬워요. 학업과 연습을 병행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가까워질 기회도 적었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텐데. 아쉽죠.

반대로 가수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예요 🔎



- JR: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팬 분들의 존재는 곧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 백호: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평소엔 생일을 평범하게 보내는 편인데 데뷔 후에는 과분할 정도로 많은 축하를 받거든요. 그 또한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어떤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자신을 기다리는 팬에게 "내가 뭐라고 밥도 안 먹고 날 기다리느냐"고 말하는 동영 상을 봤어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삶이란 어떤 건가요 🞾

- 민현: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크죠.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좋아함으로서 자신의 여가 생활을 못 즐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 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실감해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항상 다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고요.

다들 처음부터 꿈이 가수였어요 🔎

- 아론: 제 원래 꿈은 기자였어요. 미국 뉴욕대학교에도 합격한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회사에 캐스팅이 되면서 가수에 흥미를 갖게 됐고, 결국 진로를 바꿨죠.
- 백호: 저는 열여섯 살 때 캐스팅돼서 서울에 왔는데, 그 때까지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랐어요. 막연하게 '가수 하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컸죠. 하면 할수록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민현: 사실 어렸을 땐 꿈이 없었어요. 다만 노래하는 건 무척 좋아했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캐스팅돼서 오디션을 봤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합격했다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연습 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 JR: 저는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됐어요. 고향이 강릉이라 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마음이 지친 상태로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사실 포기할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부모님이 제게 의지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텼죠.
- 렌: 저는 어릴 때부터 가수란 직업을 좋아했고 끼가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TV에 나오는 가수들 춤을 따라 추기도 하고 그걸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줄곧 연예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회사에 캐스팅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죠.

처음 가수를 꿈꿨을 때 상상하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비슷한가요 🖓



- 민현: 저는 제가 춤을 추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워낙 발라드나 알앤비를 좋아해서 우리가 2AM 같은 그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춤을 추고 있네요. 으하하.
- 백호: 열심히 추는 걸로는 최고에요.(웃음) 저는 데뷔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고 나서 현실에 부딪쳐 보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꿈은 적당히 커야 한다' 쪽으로 바뀌었어요. 꿈이 너~무 크다 보면 그게 꿈으로만 남게 되더라고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뤄나가려고요.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건 다르잖아요. 가수로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는 건 뭔가요 🞾

- 아론: 저는 부모님에게 든든한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지금은 얼마나 이뤄진 것 같아요?) 아직까진 꽤 멀었죠. 하하. 더 열심히 해야 해요.
- 렌: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아세요? 동화 작가님들이 회의하며 글 쓰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저 일을 하면 힐링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동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자기 생각도 꺼내놓고.
- 민현: 저는 그냥 계속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노래를 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할까요?
- 백호: 민현이를 보면 항상 노래를 하고 있어요.(웃음) 저도 계속 노래하고 음악하면서 먹고 사는 게 꿈이에요. 비단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냥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 JR: 저는 나중에 연기를 하고 싶어요. 배우들은 배역마다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게 참 좋아 보여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보면서 여러 감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데뷔 5년 차가 됐죠. 데뷔 초와 비교해서 수월해진 일, 반대로 아직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요 🞾



- 민현: 이젠 방송을 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긴장부터 하고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는데, 이젠 즐겁더라고요. 물론 노래와 춤은 아직도 많이 발전해 나가야 하겠지만요.
- 백호: 데뷔 때와 마음가짐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늘었어요. 작사나 작곡에 참여하면서 실력적으로 많이 향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욕심이 생겨요. 저는 우리 음반이 꽤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 렌: 저는 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평소에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편이거든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고요. 아까 민현이가 말한 대로 좀 더 즐기면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JR: 저도 렌이랑 비슷해요. 예전에는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즐기면서 하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괜찮다고 말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란 책을 봤거든요. 정말 인상깊었던 구절이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였어요. 그동안 두려움을 감추고 피하고 (스스로를)속이려고 했다면, 이젠 달라졌어요. 맞서 싸워야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요.











아이비클럽×작가정신 출판사가 함께하는 도서 증정 이벤트





캐서린 M. 밸런트 장편소설 | 아나 후안 일러스트 | 각 권 12000원

QUIZ!

이에지 속 틀린 그림은 몇 개일까요? 1.1개 2.5개 3.10개 4.15개



"성인 독자와 어린이 독자를 아우르는, 금에기 최고의 판타지 소설이다."_타임 소녀가 다스리는 요정의 에계, 페어리랜드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모험 판타지

★뉴욕타임스 베스트엘러, 미국 도서관협회 언정 도서, 앙드레 노튼 앙 수앙, 로귀스 앙 수앙

<아이비클럽 문화 이벤트 소문내고 작가정신 도서 선물 받자>

응모 방법 -페어리랜드 시리즈의 이미지 속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아이비클럽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방문해서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개인 SNS에 이벤트를 공유하면 당첨 확률 UP!)

이벤트 기간 2016년 11월 18일~2016년 12월 31일

당첨자 발표 2017년 1월 5일

이벤트 경품 '페어리랜드 시리즈' 1~3권 (10명)

자세한 내용은 아이비클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ivyclub.com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3 트윈타워빌딩 A동 2F 080-527-7655 | 080-461-8881 | www.ivyclub.com 제작 아이코나츠 www.iconarts.co.kr

